**성탄 대축일(2017년 12월 25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왔고, 온 세상이 기쁨과 행복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불교 신자건 사이비 종교 신자든, 무신론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간에, 남녀 노소 상관 없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색도 상관 없이, 아무튼 세상 온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고, 사랑이 담긴 성탄 카드 돌리고....

오늘 만큼은 원수도 없습니다. 미운 사람한테도 괜히 한번 웃고 지나갑니다. 평소 싸우고 지냈던 이웃들도 오늘은 웬지 좀 친한 척도 해보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근데 내일이면 다시 원상 복귀, 도로아미 타불 됩니다. 세상에 구세주가 왔어도 또 내일이면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 정말 큰 축제입니다.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건입니까!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진짜요? 거짓말...

네... 저도 무지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드디어 이 성탄 대축일 마지막 미사를 하고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무사히 모든 행사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미사 무지 많이 했습니다. 고백 성사도 무지 많이 들었구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좀 성탄의 기쁨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탄 자정 미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지난 수년 동안 습관이 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신학생이 되었던 첫해 성탄절 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워낙 미사 많이 하고, 고백 성사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숨 돌릴 틈이 없는데, 성탄 전야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야 혼자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텅 빈 성당에 혼자 앉아 구유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마음 속으로 그 옛날 베들레헴의 그 장소를 그려봅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가만히 안아봅니다. 그리고 처음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얼마나 벅차고 감동스런 순간이었을까요! 세상에 처음 나신 구세주를 품에 안았을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그 감동과 은총을 저도 내 삶에 가만히 안아 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이 처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느꼈을 벅찬 기쁨과 행복이 삶 안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품으면 성탄은 그때부터 나의 성탄이 됩니다. 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구경하는 성탄이 아니라, 내 마음안에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주님 사랑을 품는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진짜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라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죠. 늘 열심히 바쁘게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앞만 보고 죽어라 뜁니다. 그래서 잘 뜁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쉽게 행복해 지기 힘든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하루 하루가 다 기적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말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배만 고프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내 아이들에게 오늘 한끼 식사만이라도 해 줄수 있다면’하고 누군가는 기도합니다. ’하루만 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남 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메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잃었던 행복과 사랑을 찾고, 그리고 축복과 희망을 함께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미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과거의 어둠과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후회와 아픔의 시간은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지, 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는 ‘하느님의 초대와 우리들의 신앙의 응답’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사랑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구세주는 용서의 구세주이시고, 자비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닮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때, 참된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안에 시작됩니다.

그리니, 늘 행복하십시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요. 서로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십시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 입니다.

성탄의 행복과 기쁨,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 삶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